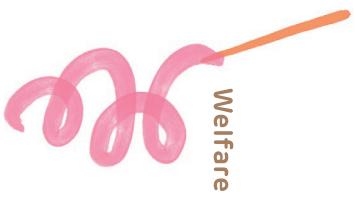


2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Korean



Artists



Foundation



Annual



2015



Report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2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4	재단소개 About KAWF	
8	미션 및 비전 Mission & Vision	
10	연혁 History	
12	인사말 Greeting	
14	사업성과 Business Highlights	숫자로 보는 '예술인 복지사업' 하이라이트
18	사업소개 Primary Business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성과

22	창작안정화
28	직업역량강화
34	예술환경 개선
36	사회안전망 구축

42	경영 및 홍보 Administration & Communications
44	언론 보도
45	온라인 홍보
46	이사회
47	조직도
48	예산



IMPROVEMENT OF ARTIST'S
WORKING CONDITION



STABILIZATION OF
CREATION

for
artists
welfare



dream



DEVELOPMENT OF ARTIST'S
CAREER S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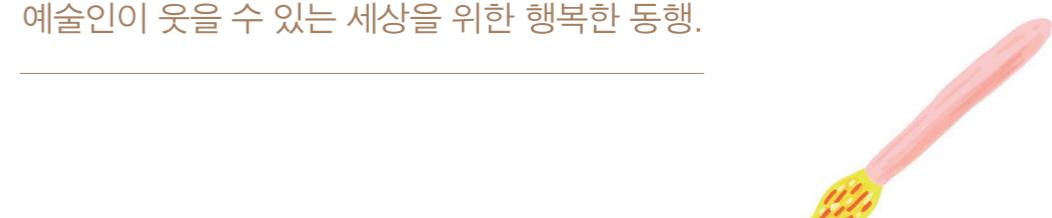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예!!

예술인의
행복을
위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대답

대한민국 예술인 모두가 열정을 잃지 않도록!
예술인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한 행복한 동행.



HAPPin Yes

예!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융성 시대에 밟맞추어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여온 예술인의 복지 실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예술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언제나
늘 함께 하겠습니다.

재단 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모든 예술인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예술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명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동숭동, 소호빌딩)

영문명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약칭 KAWF)

설립 목적

예술인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관 제2조)

2012.11.19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었다.

8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은 2011년
11월 17일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에
의거한다.

3년

2015년 11월, 창립 3주년을 맞이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창작환경 구축을 위해 4개의 사업 영역에서
총 11개의 복지사업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예! 귀 기울이고 실천하겠습니다

예술인의 직업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합니다. 이를 위해 예술인의
입장에서 예술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술인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미션 및 비전

mission

종합적·체계적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한
건강한 예술 생태계 구현

-
(예술인 복지법 제8조)

vision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 전담기관

핵심업무

- 창작안정화
- 직업역량강화
- 사회안전망 구축
- 예술환경 개선



예!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3년간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창작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는 예술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돕고, 예술인 복지를 위해
열정과 힘을 보태는 재단이 될 것입니다

연혁

2011

- 10.28 예술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11.17 예술인 복지법 제정

2012

- 8.17~9.26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9.7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청회
- 11.6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무회의 통과
- 11.18 예술인 복지법 시행
- 11.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김주영 취임
-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
- 11.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소식

2013

- 7.11일 문화예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한『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 체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7.1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9.30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오픈
- 10.10~11.18 예술인 복지 정책토론회(총 4회)
- 11.14 농촌재능나눔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 12.10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

- 2.4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
- 2.21 문화예술산업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 (한국콘텐츠진흥원)
- 2.24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오픈
- 3.27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예술법인 지정
- 3.31 『예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소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대한법률구조공단)
- 4.15 반디클럽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 5.14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
- 6.19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시행(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업무협약 체결)

- 7.16~7.17 창조산업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
- 7.2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
- 10.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 취임
- 12.30 직제개편

2015

- 1.29 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 4.1 연구자료기탁 업무협약(한국사회과학자료원)
- 4.13 2015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 5.28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융성’ 시대에 발맞추어,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여온
 예술인들의 복지 실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항상 예술인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유례없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예술인 복지사업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제정·개정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여온 예술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2012년 11월, ‘예술인의 복지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사명을 부여받아 출범한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은 출범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들을 정리하여 뜻깊은 성과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연차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동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국민적 관심과 문화예술인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지난 3년간 재단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창작환경 구축을 위해 창작안정화 사업·직업역량강화 사업·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예술환경 개선 사업 이상 4개의 사업영역에서 총 11개의 복지사업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20,494명이 예술인 복지사업의 기본 요건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하였으며,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지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심리상담〉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예술인법률상담카페〉와 각종 상담컨설팅에서 2015년 한 해에만 2만 명 이상의 예술인이 도움을 받았고, 〈계약 및 저작권 교육〉에 총 2,446명의 예술인이 참여하는 등 많은 예술인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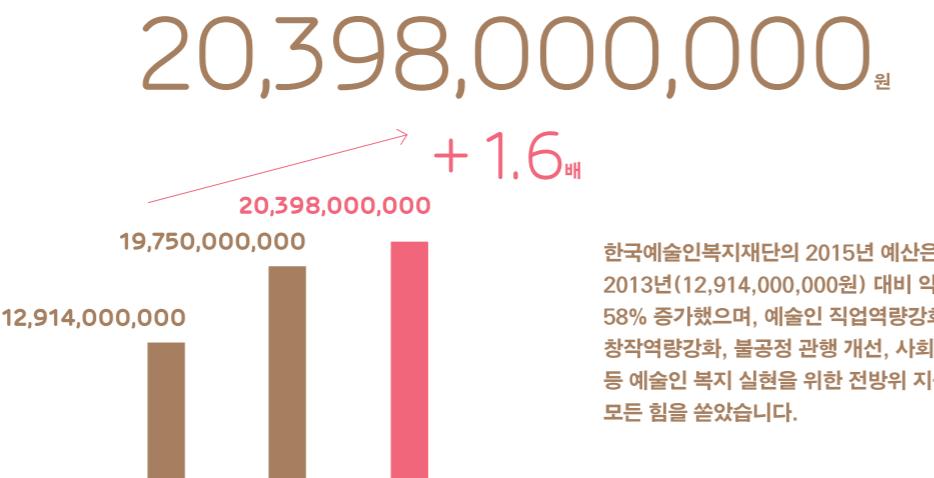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제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에게 예술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예술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국민 행복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예술인 한 분 한 분 곁에 서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문화예술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예술인 복지사업' 하이라이트



0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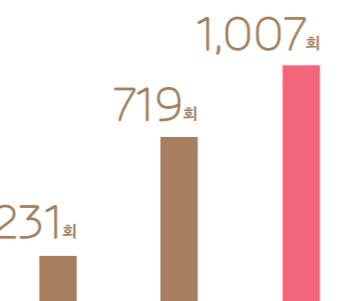
14

02

언론 보도횟수

1,007 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예술인의 관심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단은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꾸준히 개발하여 시행해 왔고, 더 많은 예술인에게 알리기 위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보도 횟수의 증가로 이어져 2013년 231회이던 언론보도횟수는 2015년 1,007회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 12월 누적

03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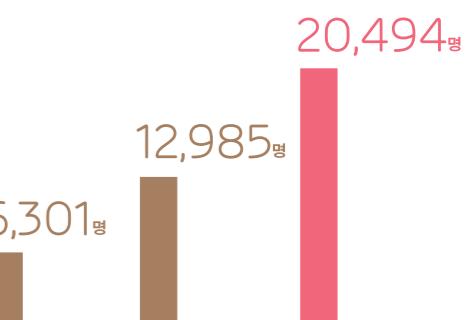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0,494 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1개 예술 분야 직업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자 법적 근거이지만 아직 예술 현장에서는 생소한 절차인 '예술활동증명'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독려하였고, 지금까지 20,494명의 예술인활동증명 승인을 일궈냈습니다.



2015년 12월 누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준비기에도 안정된 생활과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의 도약판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6,470명의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6,470 명

연도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인원
2013	창작디딤돌	1인 300만 원	1,831명
2014	긴급복지지원	1인 300~800만 원	1,860명
2015	창작준비금	1인 300만 원(원로 200만 원)	2,779명

15

05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888 명

「예술인 복지법 제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술인도 일반 근로자처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것은 큰 성과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등급별 보험료의 50%를 지원함으로써 공적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에게 더욱 안정적인 예술활동의 기반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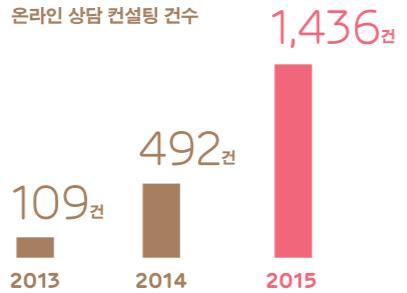
06

상담 · 컨설팅
서비스



2,037 명

온라인 상담 컨설팅 건수



재단은 법률 및 사회보장제도에 취약한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계약, 저작권,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컨설턴트 제도 운영을 통해 상담 컨설팅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예술인들이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07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769 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에 앞장서왔습니다.

2015년 12월 누적
(2014년 사업 시작 후 중복지원 포함)



08

공연 예술인 시간제 보육
지원

2,403 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특히 보육 지원이 필요한 연극, 뮤지컬, 무용 분야의 공연예술인을 위한 시간제 보육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인이 작품 활동 중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직업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반디돌봄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09

예술인 파견지원



829 명

498명

331명

2014

2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과 지역, 기업,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예술인의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예술인의 사회적 활동 참여를 통해 문화 예술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2015년

10

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196 명

5인 이상의 예술인이 모인 소그룹을 대상으로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자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예술활동을 계속할 기회와 역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

11

예술인
교육이용권지원
수혜자

857 명

2015년 12월 누적

284명

2013

270명

2014

303명

2015

예술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기술 교육 지원 사업인 예술인 교육이용권은 2013년 284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857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예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실무 위주의 교육 수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예!!

예술인이
예술로 먹고사는
세상을 꿈꾸며
늘 예술인 곁에서
열정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성과

Passion



세부 사업

- 창작준비금지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 예술인 의료비 지원

직업역량강화

세부 사업

-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
- 예술인 맞춤형 교육지원
-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창작준비금
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시천접수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예술 창작활동 및 직업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모



예술창작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리 신장에 이바지하고,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예술인의 고충을 처리 및 해소



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한국 / 미국 뉴욕주)
E-mail : skhong2@gmail.com

사회보장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한
중장기적인 복지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 도모

세부 사업

- 예술인 신문고
- 예술인 법률상담
- 예술인 심리상담
-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사회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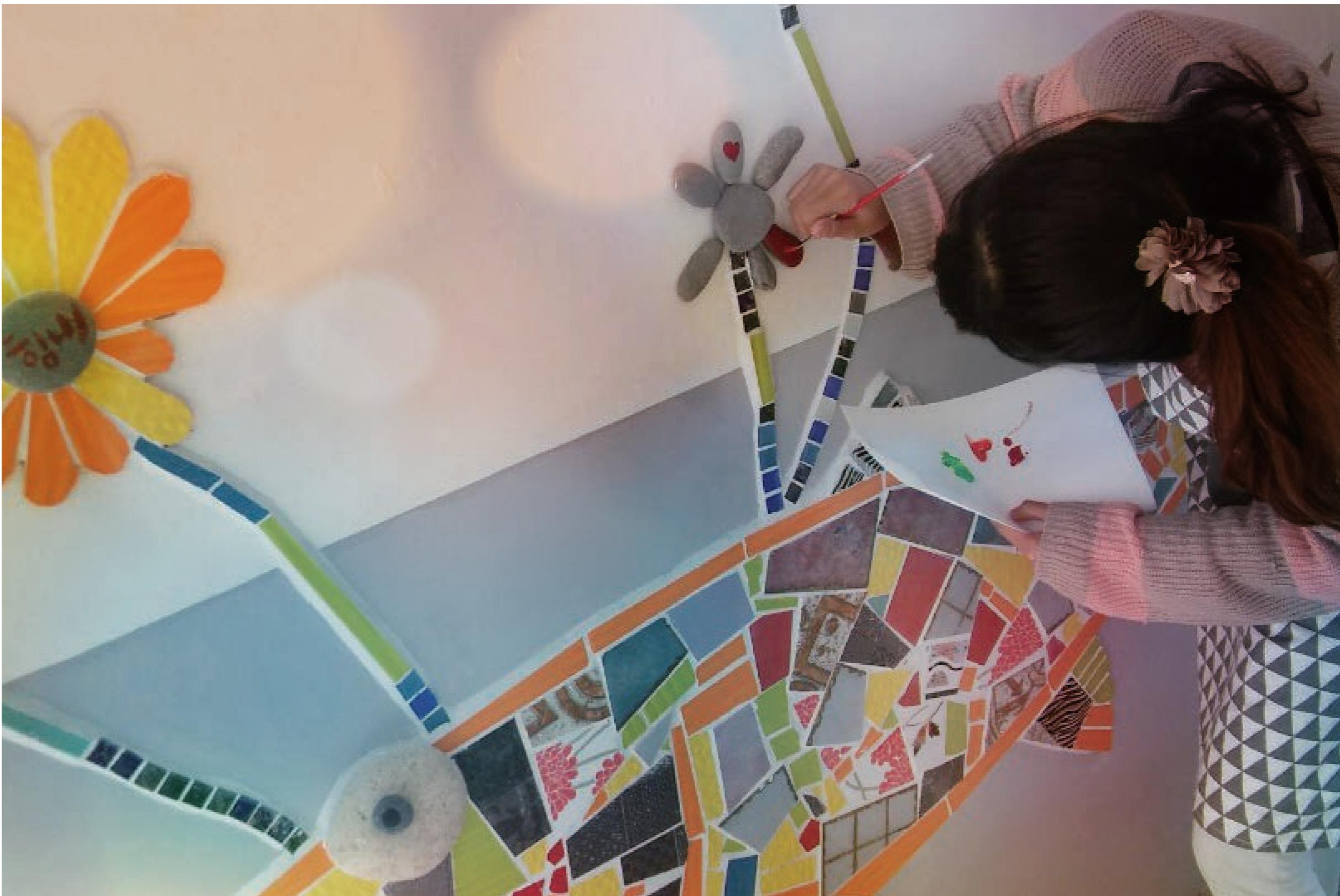
세부 사업

- 표준계약서 제작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든든해요!

“진정한 예술은 창조적인 예술가의 견딜 수 없는 충동 때문에 탄생한다.”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예술가가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예술인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진정한 예술이라는 희망과 열정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따뜻한 햇볕이 되겠습니다.



희망과 창작의
따뜻한 햇볕이 되어드립니다

- * 창작준비금지원
-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 * 예술인 의료비 지원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예산(원로예술인 포함)
11,000,000,000

수혜 인원
2,709

2013년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준비지원(창작디딤돌)'을 시작으로,
2014년 '긴급복지지원',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으로 이어져 온 이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예술인이 예술활동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원로예술인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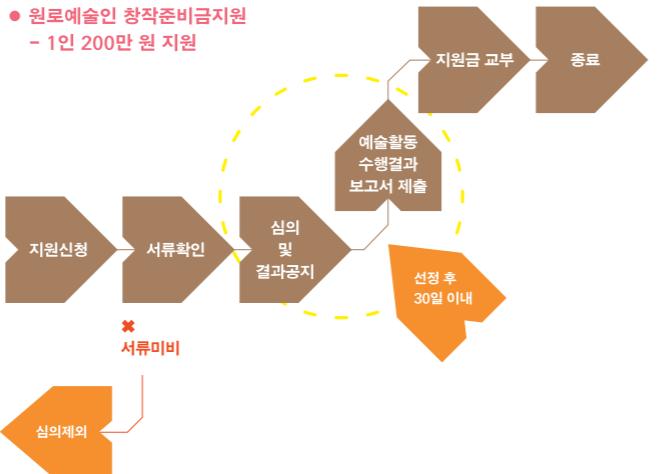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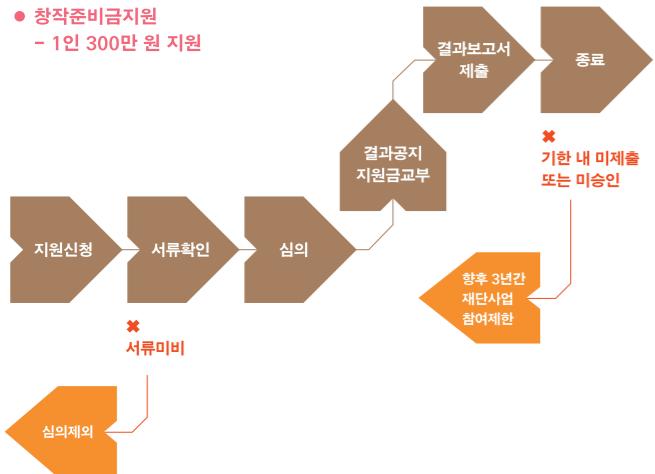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수혜 인원
7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척박한 땅에서 예술혼을
불살라 온 원로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창작활동을 희망하지만, 기회가 적은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지원
대상의 폭을 넓힌 것은 물론, 국가의 품격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온 이들을 제대로 대우한
것으로도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재단은
신청 및 서류 작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원로예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지원,
방문 상담'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도왔고, 2015년 총 7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4 창작준비금지원 추진체계



" 힘든 현실에서 이번 지원금으로
정말 좋은 성과와 결실을 얻게
되어 앞으로의 예술활동에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현실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헤쳐나가고
싶은 많은 예술인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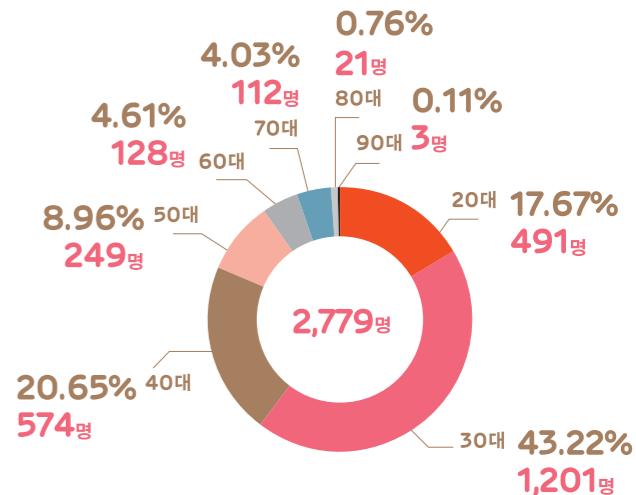
" 예술인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준다는 기분이
들어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이 높아졌습니다."

"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우리 예술인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 불규칙적이면서도 적절하지 못한
임금을 받는 예술인들에게 심적,
물질적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준 제도였습니다."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원로예술인 포함)
연령별 수혜 현황

2015년 12월 31일 기준



예술인 의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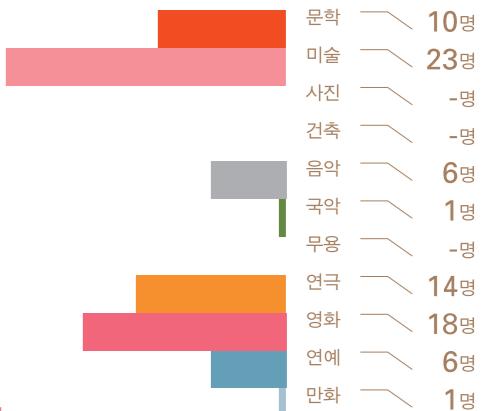
지원 금액
340,000,000

수혜 인원
79

3년 누적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에게
2013년부터 3년간 시행된 의료비 지원금
예산은 총 3억 4천만 원으로, 이 사업을 통해
총 79명의 중증질환 예술인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5년 사업 참여 기준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예술인이었으며,
특히 만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
대신 예술경력증명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조항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현황



**창작준비금은
예술과 현실 사이의 해법을 찾는
작은 실마리**

희곡작가 김영무



66 내가 좋아 선택한 예술이니 현실적인 어려움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연극이나 오페라 희곡 열 편 쓰는 것보다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 한 편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되지만, 상업 예술보다는 순수 예술 작업에 더 매력을 느끼는 건 자유롭게 작가 정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예술인에게 순수한 예술 행위와 현실적인 문제는 늘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지원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술인이 현실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작품 활동에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왕이면 보다 많은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곡작가 김영무 선생은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입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올해 73세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왕성한 집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곧 무대에 오를 『노자 일기』, 『독도 수비대』와 오페라 『고타마 싯다르다』 등의 작품을 통해 '마지막 불꽃까지 모두 태우는 예술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예술인의 현실을 공감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와 같은 것**

미술가 전혜림



66 창작이 쉽지 않은 길임을 알기에 다른 일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창작하고 싶어 작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술인의 생활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 작업하는 작가에게는 예술인의 현실을 공감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지원은 바로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큰 작품을 창작하고 싶지만, 제작비가 만만치 않아 늘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다행히 이번 전시 준비 과정에서는 창작준비금지원을 통해 제작에 필요한 부분과 운송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예술 외적인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작품 활동에만 몰두하며 한 호흡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창작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술활동을 지속하여 더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가 전혜림은 2005년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2011년 한가람미술관 신세계 아트스타전, 2012년 서울미술관 알파 청년작가 수상전, 2013년 호림미술관 Small Masterpiece 전 등을 통해 개성 있는 작업을 펼쳐왔다. 2015년에는 창작준비금지원 청년 작가로 선정되어 작품 활동의 중요한 전환기가 된 대표 연작 '나르카디아'를 선보였고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양면적인 이상향으로 주목받았다.



예술인 스스로 춤추게 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생활 지원'이라는 단기적인 처방을 뛰어넘어 '예술인 창작 지원'을 통해 예술인 스스로 재능과 기량을 빛낼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예술로 먹고사는 세상! 예술인을 스스로 춤추게 하는 자립의 사다리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재능과 기량이
빛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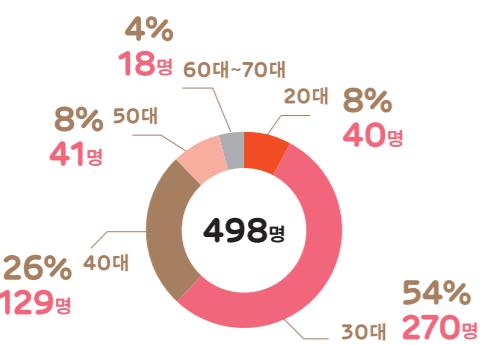
- * 예술인 파견지원
- *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
- * 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 *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수혜 인원
498
-
수혜 기관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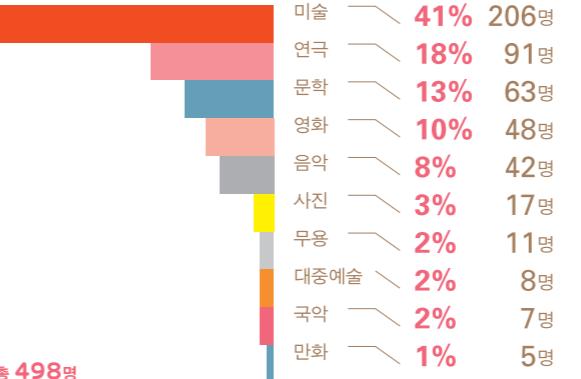
2015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연령별 수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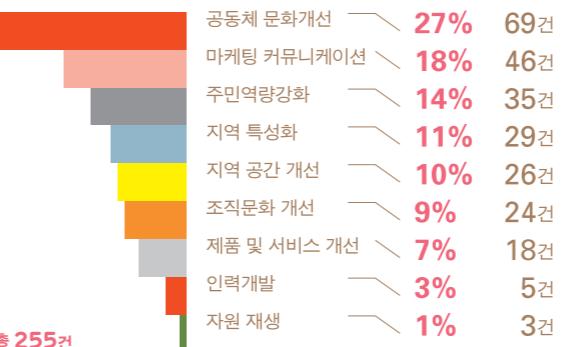
예술인 파견기관



2015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장르 분포



2015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프로젝트별 유형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



수혜 인원
303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예술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기술 교육 지원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 위주 교육을 통해 예술활동의 기회 확대를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4~12월 교육이용권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하면 최대 100만 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수혜 단체
34
-
수혜 인원
196

'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은 예술 창작의 구심점인 소규모 예술인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예술의 가치를 확장·공유하는 직업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최소 5인 이상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재단은 현장 예술인의 예술역량 강화를 돋는 프로그램에 대한 맞춤형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충무아트홀이 운영하는 뮤지컬전문아카데미 수강생들이 개발한 창작뮤지컬 2편과 다양한 공연예술 형태를 접목해 창의적인 공연 모델을 개발한 이색 프로젝트인 '달다방 신(信, 身, 新) 프로젝트' 등이 성공 사례로 손꼽힙니다.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 지원



수혜 인원
2,40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5년 3월부터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 지원'을 위해 서울 대학로에 '반디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품 활동 중 이용 가능한 시간제 보육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그들이 안정적인 직업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4개월~10세 미만 자녀를 가진 예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은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2년가량은 작품이 들어와도 하지 못했는데, 반디돌봄센터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이도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발전은 물론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니까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 예술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뮤지컬 배우 조수정 여성신문 인터뷰 중
2014년 11월 17일

MINI INTERVIEW

끝나도 끝나지 않는 흐름, 추억극장 미림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진작가 오석근



미림극장은 인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추억의 극장이자 위기의 극장입니다. 2015년, 미림극장은 예술인 파견 사업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대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기획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영난에 봉착한 예술단체들이 그렇듯 미림극장 역시 예술인의 다양한 활동 지원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작가들은 거의 돈이 들지 않는 활동, 즉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몸을 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각각의 프로젝트가 탄력이 불기 시작하면서 극장의 분위기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과 작가들의 관계도 개선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쌍트고, 예술가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견작가들의 시도와 노력이 점차 외부에 알려지면서 인천 지역 예술인들과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극장의 위기를 함께 타개하고자 하는 흐름도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인 파견 사업의 흐름은 사업이 끝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발판으로 미림극장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작가 오석근을 비롯해 김재민이, 김수환 등이 공동기획으로 참여한 '제1회 인천 국제비엔나소시지영화제'가 탄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미림극장은 영화 상영, 팬클럽, 문화예술 행사 등에 적은 비용으로 공간을 대관해주는 사업도 시작했고, 꿈다락문화학교 프로그램의 청소년들이 기획한 뮤지컬 영화제 '일어나보니 9시 20분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미림극장은 예술인 파견기관으로 지역의 작가들과 열린 마음으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며 소통해왔고, 마침내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모두가 예술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예술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왔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예술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보듬어드립니다

- * 예술인 신문고
- * 예술인 법률상담
- * 예술인 심리상담
- * 예술인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예술인 신문고



접수 건수
186
-
종결 건수
54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상담, 신고, 조정, 소송 지원 등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인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창작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이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불공정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 조사를 진행하며, 문화예술 분야별 현장 예술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정명령을 부과하게 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민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총 54건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예술인 법률 상담



온라인 상담 컨설팅
1,436
-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개최
23
-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상담
74
2015년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 저작권,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의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과 저작권과 계약 등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협회,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와 같이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주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진화되어 예술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예술인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첫수
33
-
수혜 인원
2,446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의 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예술계 진입을 앞둔 예비 예술인이 직업 세계에 입문한 이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 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협업 종사자는 물론 관련 협회나 단체에도 교육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예술인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은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내 관련 부서 및 단과대학 그리고 기타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사업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개인 심리상담
271
-
집단 심리상담
136
201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마음마저 살피고 챙겼습니다. '예술인 심리상담'은 나홀로 창작환경에 놓이는 많은 예술인의 특수성을 참작해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 수도권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2015년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된 '예술인 심리상담'은 1급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춘 총 21개 임상 심리 전문기관을 예술인 심리상담 전문기관으로 위촉하여 개인의 경우 총 12회까지 무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인 숲 친목 캠프>, <예술인 마음치유 캠프>, <몸·마음·예술 그리고 치유의 여정> 등 다채로운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선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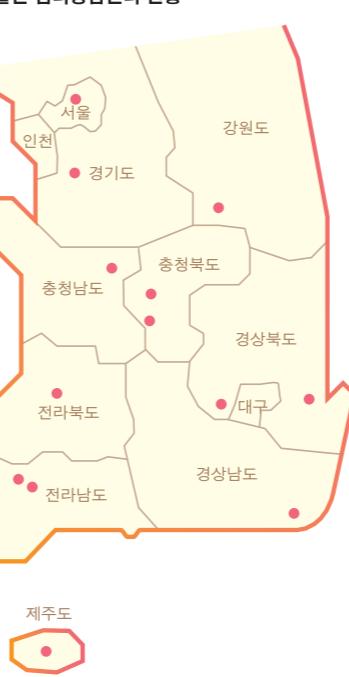
서울
다음심리상담센터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마음의숲 심리상담센터
행복심리센터 밝음
행복찾기 심리상담센터
세인 임상심리연구소
심리상담센터 헤세드
이수 심리상담센터
한국영성 심리상담센터

경기
향기나무 심리상담센터

강원
지우 심리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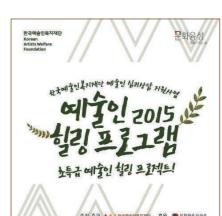
충청
손애리 심리연구소
학습&마음
심리상담센터
충북심리건강센터

경상
강박사 마음&학습
심리상담센터
참마음 심리상담센터
새미래 심리건강연구소



전라
심리건강연구소
최영미 마음상담센터
온다라 심리교육상담실

제주
내마음의 펭귄





안심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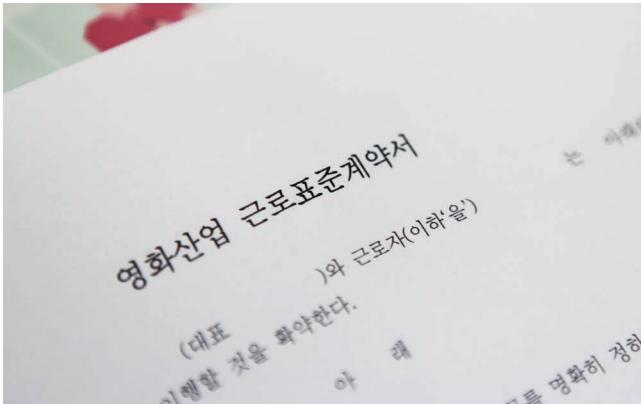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은 예술인이 안정된 제도망 안에서 보다 행복한 예술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 산재보험료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특히 예술 분야에 팽배한 무계약 관행을 타파하고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표준계약서 체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비치아트페스티벌' 등 예술계 주요 행사마다 찾아다니며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시각표준계약서 개발·보급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실하고 무책임한 계약문화 개선을 통해 예술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 실무', '예비예술인 대상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 지원을 통해 올바른 인식 고취를 위해 힘썼습니다.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공연예술 3종

표준 창작계약서, 표준 출연계약서, 표준 기술지원계약서

방송 5종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근로·하도급·업무위탁)

영화 7종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투자계약서,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시나리오계약서(5종)

출판 7종

표준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표준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표준 출판권 설정계약서, 표준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표준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표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표준 저작물을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저작권 4종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만화 6종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저작 재산권 위임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표준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젠 더욱더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예술인의 복지를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이 생겨서 예술인으로서 든든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수혜 인원

769

수혜 단체

28

2015년 12월 누적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나 기업, 공공기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고, 나아가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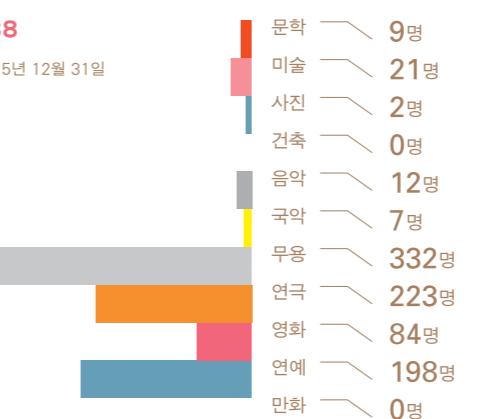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산재보험 누적 가입자 현황

888

2015년 12월 31일



수혜 인원(2015)

420

누적 가입 인원

888

2015년 12월 누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등급별 산재 보험료 50%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888명의 예술인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심적인 안정감과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예술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보험 혜택이 이제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도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을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 및 홍보

Administration & Communications

늘
예술인
곁에
있습니다.



상담안내
19,025

2015년 전화 16,901건,
방문 2,124건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기본 요건인
'예술활동증명'의 절차와 방법, 복지 지원
사업,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등에 대한
예술인들의 민원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2013년 9월 30일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개소,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예술인들의 고충상담 및 문의, 민원을
제일선에서 해결하는 창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상담과 문의를 원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 1층에 있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예술인이 언제든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컴퓨터, 프린터, 다과류를 비치하고
있으며, 월 2회 변호사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등을 상설운영하는
등 예술인에게 밀접하게 다가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활동증명 인원
20,494

2015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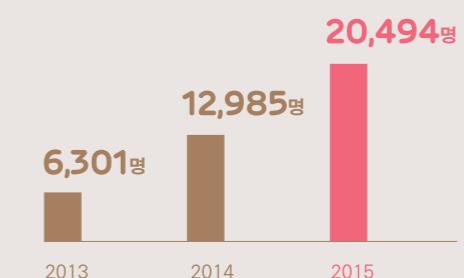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예술활동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기본 조건이자 법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신청 절차(예술활동증명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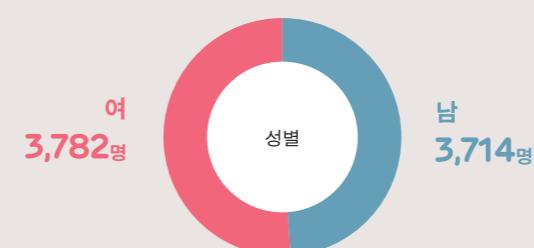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 연도별 누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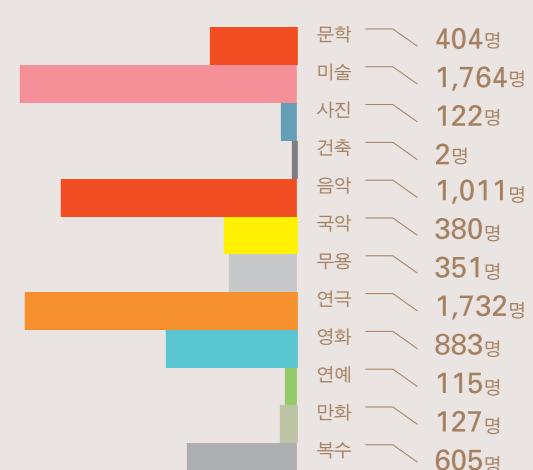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 간신자의 경우, 최근 간신년도 기준으로 해당인원 계산

2015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주요 특성

증명 완료자
7,496



분야별



신청 방법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6,113명

보도자료 배포

21

단독 18회, 유관기관 공조 3회

언론 보도횟수

1,007

대면 홍보

(사업설명회, 문화예술 행사참가 등)

39

언론 보도횟수

연도	회수
2013	231회
2014	719회
2015	1,007회

대면 홍보

예술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 예술인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하고자 했습니다. 재단의 사업을 예술인에게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예술인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재단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 홍보, 지면 광고, 옥외 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권역별, 장르별 예술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 대면 홍보도 크게 늘렸습니다. 2015년에는 총 39회의 대면 홍보를 통해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의 예술인과 직접 만나 사업을 안내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모바일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www.kawfartist.kr

www.facebook.com/kawf486

뉴스레터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이사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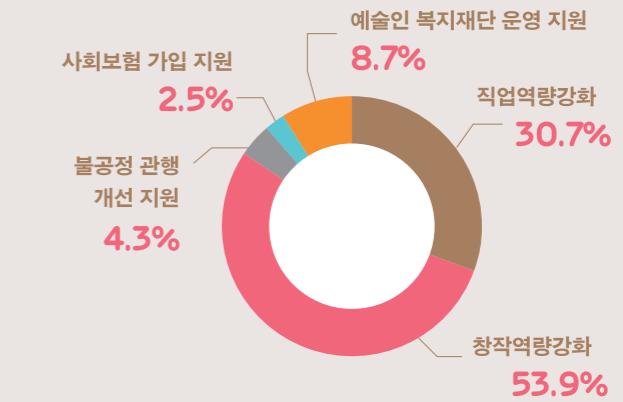
직위	이름	비고
이사	상임이사/대표	박계배 연극연출가, 호원대학교 교수
	이사장	김주영 소설가
	구본영	서울신문 논설위원 실장
	김상현	네이버(주) 대표이사
	박용재	극작가, (전)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박종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성기숙	한예종 한국예술학과 교수
	조수정	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백호	한국음악발전소 소장
감사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종국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이사	이용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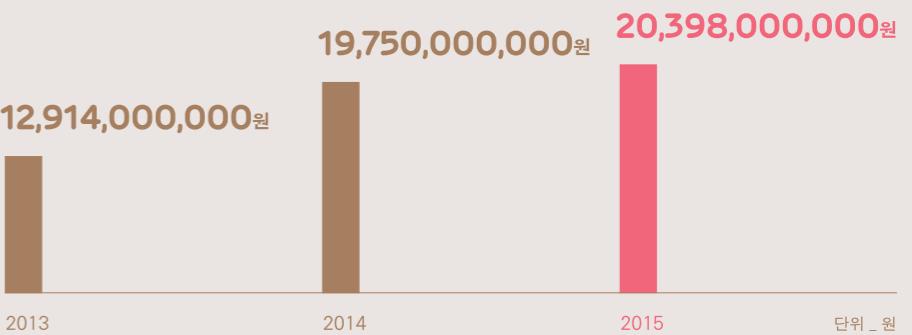
2015년 사업별 예산 편성

세부사업명	2014	2015
창작역량강화 -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2015) - 긴급복지지원	11,737,631	11,000,000
직업역량강화 -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 -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 지원	5,733,805	6,253,000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464,250	870,000
사회보험 가입 지원	125,200	500,000
예술인 복지재단 운영 지원	1,689,114	1,775,000
총계	19,750,000	20,398,000

단위 _ 천 원(국고 기준)



3년간 예산 추이





2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www.kawf.kr

발행일 2016. 2. 1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박계배

기획 전략·홍보팀
이경구 본부장
김세영 대리
김가진
편집·디자인 시호워크
인쇄 영은문화인쇄(주)

